

주체사상 학생토론회 발제문 2(2001년, 서울대학교)

민족해방



선행한 고전가들은 로동동맹을 사회의 기반으로, 혁명의 기본 추동력으로 보았다. 계급관계의 건지에 기초한 그 이론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고 낮 우에 총대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군민일치를 혁명의 운명문제로 제기하지 못하였다. (줄임) 군민일치를 밀뿌리로 하여 강성하는 주체의 사회상, 이것은 사회성원들을 경제적, 계급적 관계에서 구분하던 종래의 이론을 초월하여 군대와 인민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과 그 발전완성방향, 위력의 근본원천을 명철하게 밝힌 것이다." "마치고 낮은 총대를 만들어내지만 총대의 사명과 위력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조선)은 소련방의 해체와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의 몰락은 "군대를 비사상화, 비정치화함으로써 총권 군대가 당이 변질되고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앉아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였다"고 분석한다. 기존 사회주의 사회의 군대관은 공백으로 남아있었고, 자본주의 사회의 군대관은 국가방위에 국한되어 있는데 비하여, 북(조선)의 군대관은 완전히 다르다. 북(조선)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고 활력있는 성원으로 선발된 혁명군대는 가장 잘 준비된 혁명의 핵심대오, 정예대오"이며, "사상적 높이와 계급적 자각에 있어서, 단결력과 전투력, 투쟁기풍과 도덕기풍에 있어서 군대의 수준을 따를 대오는 없다"고 한다. 저들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군대이고 당의 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선봉부대로 되고 있는 것도 우리 군대"라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귀감도, 자력생성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동지애의 숭고한 모범도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문화도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총비서는 "우리 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했고, 『로동신문』은 북(조선)의 군대는 "온 사회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끊임없이 뿜어주는 저수지"라고 묘사하였다. 따라서, "인민군대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창조한 가장 힘있는 전투부대"이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가 창조한 정신과 도덕, 투쟁 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군혁명명도'라는 개념이 나온다. "선군혁명명도는 인민군대가 창조한 정신과 도덕, 문화를 전체 인민이 따라배워 군대와 인민이 단결된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게 하는 불패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 총비서가 이처럼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모범으로 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선군혁명명도'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로, 저들은 북(조선)의 군대가 북(조선) '건국의 기초'인 항일무장투쟁사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일 총비서는 김일성 주석의 "혁명투쟁력사는 군대를 먼저 창건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온 선군혁명명도의 력사"라고 말했다. 둘째로, 저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조선)을 지켜낸 김정일 총비서의 업적이 군사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저들은 김정일 총비서가 "가장 어려운 시련의 불길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단신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력과 눈부신 활약, 비상한 령군실력과 장군다운 배짱으로" 북(조선)을 지켜냈다고 믿고 있다. 저들은 "일시적으로 경제건설에 지장을 받고 인민생활이 어려워도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군사를 중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북(조선)을 "지켜낸" 김정일 총비서의 "선견지명과 민족사적 업적은 대를 두고 길이 칭송될 것"이라고 본다. 셋째로, 북(조선)은 군사중시란 곧 군사과학기술의 중시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북(조선)이 말하는 군사과학기술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엄청난 국력을 쏟아부어 자체의 힘으로 미사일을 개발한 것을 말한다. 북(조선)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힘을 기울여왔는데, 저들은 이것이 김정일 총비서의 군사부문 '명도업적'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북(조선)이 '공화국 창건 50돐'에 앞서 '광명성 1호'를 발사한 것은 자체의 힘으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핵무기 보유를 '암시'하기 위함이었다. 김정일 총비서는 북(조선)의 "인민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내고 내일의 부강조국을 위해 수억 달러의 자금을 그 부문(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뜻함-옮긴이)에 돌렸다"고 말했다. '광명성 1호'의 발사를 두고 북(조선)은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 있는 적들도 무자비하게 타격할 수 있는 위력한 공격수단", "우주적인 타격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넷째로, 저들은 '군사중시사상'과 '선군혁명명도'가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략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저들은 "제놈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되거나 경각성을 늦추는 기미만 보이면 침략의 불을 지르는 것이 미제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미제가 지금껏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이 위력하고 군대와 인민의 전투동원태세에 추호의 빈틈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만일 북(조선)이 낡은 재래식 무기 밖에 없고, 이라크나 유고연방처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아무런 공격수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1990년대의 전쟁은 페르시아만이나 발칸반도가 아니라 한(조선)반도에서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미국은 '핵개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조선)을 무력으로 공격하려고 준비하였으며, 북(조선)은 이에 맞서 날카로운 항성의 의지를 보였다. 1993년-1994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조선)반도에 전쟁위기가 몰려오던 1998년 12월초 북(조선)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미제와는 반드시 한번 맞서싸워 기어이 피값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미제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창을 박는 심정"을 가져야 하며, "일을 해도 걸음을 걸어도 우리들의 심장마다에는 미제에 대한 복수의 일념이 세차게 끓어번져야 한다"고 한 표현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배어나온다. 저들은 "최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998년 12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을 뜻함-옮긴이)은 우리에게도 우리식의 작전계획이 있고 타격방식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며, "수십년동안 다지고 숙련해온 막강한 군사기술적 힘과 우리식의 위력한 타격방식으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을 위협했다. 북(조선)은 초강대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미국에게 살벌한 말로 골간·협박하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3) 궤도수정 없는 외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서방세계는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조선)이 결국 외세의 회유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본주의식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듯이 김정일 총비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것은 나의 사상이 영원히 불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사회주의적 확대재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며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라고 확인하였다. 북(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과 사회주의 계획경제노선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노선의 추진력을 더 강화하고 그노선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더 강조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저들은 "우리 경제의 자립성에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과 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세상에는 우리 인민과 같이 것처럼 일관성 있게, 것처럼 철저하게, 것처럼 간고하게 자립의 길을 걸어온 인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길에서 우리가 당한 외세의 압력과 간섭,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겪은 난관은 몇백권의 책에도 다 담을 수 없다"고 하였다. 19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였으며, 인민경제부문에서 농업에 1백11%, 전력공업에 1백15%,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철도운수에 각각 1백10%, 과학사업에 1백10%의 투자를 늘린 예산안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북(조선)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조선)은 어떻게 하여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변함없이 고수하려 하고 있는가? 첫째로, 북(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총비서는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 간판을 걸고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의 위협성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북(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경제의 <일체화>책동이야말로 매개 나라의 민족경제를 무자비하게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반동공세"이므로,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속심을 옳게 꿰뚫어보고 경제의 <세계화>책동에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으로 맞서나가야"하며, "그들의 온갖 제제와 경제봉쇄를 혁명적 공세로 단호히 분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북(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 제국주의의 봉쇄전략에 맞서는 자력갱생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조선)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제국주의 봉쇄전략에 자력갱생의 전략으로 맞선다"는 것이다. 김정일 총비서는 "자력갱생의 길만이 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이룩하는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설사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 겪는다 해도 외세에 경제의 명줄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조선)은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은 지난날에나 오늘에나 절대적인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기서 북(조선)이 말하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이란 곧 중공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발휘하는 우월성을 뜻한다. 저들에 따르면, "우리식 경제구조는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고 모든 경제부문들이 조화롭게 갖추어진 자립적인 경제구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형적인 대외의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생활을 높인다고 하면서 중공업을 소홀히 하거나 외화가 있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해결방도로 될 수 없다. 물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공업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은 자립적인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북(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 지금 비록 난관을 겪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오늘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조선)은 "자력갱생의 원칙은 과학기술이 안받침될 때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력갱생 구조는 결코 과학을 무시하는 주먹구구식 구호가 아니"며, "최신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제 힘으로 살아가는 길을 더욱 힘있게 열어나가는 것이 오늘의 자력갱생"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경제가 가장 전망성있는 경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조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자립을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북(조선)은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가 아직은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대규모 금속공장을 비롯한 기간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공업부문의 활성화에 강조점을 찍었다. 이처럼 북(조선)이 중공업부문을 강조하는 까닭은 중공업이 자립경제의 기초이며 선행부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북(조선)이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북(조선)은 중간 규모 국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던 케이스 그리핀(Keith Griffin)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의 한(조선)반도 특사인 찰스 카트만(Charles Kartman)이 1999년 5월 3일 뉴욕의 아시아협회(Asia Society)에서 북(조선) 경제가 몇 달 전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면서 북(조선)의 경제난이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남(한국)의 전문가들도 북(조선) 경제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4) 재현되는 원역사(原歷史)- '제2의 천리마 대진군'과 4대 추진방향

북(조선)에서 1998년은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고 맞이한 '전환기'로 기록되었다. 『로동신문』은 "우리는 지금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살고 있다"고 했다. 1998년은 "지난 몇해동안의 <고난의 행군>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일대 공격전으로 정치, 군사,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시기였다. 이 '전환기'의 북(조선) 정세를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서 이룩한 승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진격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 김정일 총비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문제다. 김정일 총비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북(조선) 정세를 파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마감한 '전환기'에 그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한 활동이 자강도 현지지도였다는 사실이다. 1998년에 있었던 인민경제부문 현지지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자강도에서 19개 단위를 돌아본 현지지도다. 김정일 총비서는 이 기간 동안 강계시, 장강군, 성간군의 중소형수력발전소, 강계뜨락또르련합기업소, 2월제강련합기업소, 2.8기계련합기업소, 강계정밀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였다. 현지지도를 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그밖의 단위들은 어떤 곳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 군수공업부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김정일 총비서를 따라 자강도 현지지도도 수행했던 당 간부는 자강도로 떠나기 직전 "날씨가 너무도 차고 위험한 고비도 많기 때문에" 자강도 현지지도를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도 한다. 그러나 김정일 총비서는 "마음 먹은 일인데 감시다"고 하면서 "굳이 강계로 향"했다. 보도에 따르면, 1998년 1월 중순의 자강도 현지지도는 "평화 40도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대소한의 추위" 속에서 강행된 "6천여리 눈보라길"이었다. 자강도 현지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로동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김정일 총비서는 자강도의 어느 공장에 가서 "바다를 이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보고 "이것이 다 우리 것인가"고 물었다. 공장의 한 책임자는 "그것이 다 우리의 기술자, 로동계급이 만든 100% 우리의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김정일 총비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술만으로는 이런 설비들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시오, 그러나 로동계급은 해내질 않았소라고 감개에 넘치여" 말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동자들에게 오늘 북(조선)의 어려운 경제형편에 관하여 해설해주면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데서 로동계급과 달리 일부 일꾼들의 정신상태가 문제로 된다는 데 대하여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들은 노동자들은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넘겨다보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이 타당반으로 그 허물을 다 벗겨주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정일 총비서는 "지금 일부 사람들이 그 무슨 새 것을 찾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늘에서 저절로 돈뽕치가 떨어질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전당이 5차 당대회 보고를 다시 학습하고 오직 그 결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가 노동

자들에게 학습하라고 강조한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는 1970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대회를 말한다. 이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은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심과업」, 「사회주의 문화건설」, 「사상혁명-은 사회의 혁명화-로동계급화」,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다섯 가지 과업을 제시한 바있다. 김정일 총비서가 노동자들에게 애로되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노동자들은 "일감을 더 주십시오. 실컷 일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김정일 총비서는 "여기에 와서 보니 힘이 난다. 우리 당이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하며 "크나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이것을 "굵어죽어도 기계만은 배고 죽겠다는 자강도 로동계급의 정신"이라고 묘사하였고, 자강도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보여준 '모범'을 이렇게 기록한 바있다.

자강도는 다른 곳들보다 생활조건에서 불리하면 불리하였지 유리한 것이 없다. 지난 몇해동안 자강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참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자강도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크게 써붙여놓고 그 어떤 고난도 과감히 뚫고 전진하는 조선의 불굴의 신념과 락관을 감동깊이 보여주었다.

자강도 현지지도를 마치면서 김정일 총비서는 "자강도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은 일군들이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일을 해제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자강도 사람들의 정신상태와 일본새"에 만족하여 "마치 인민군 협주단 공훈합창단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자강도 현지지도와 관련하여 그가 남긴 말은 다음과 같다.

자강도는 공산주의 리상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락원의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자강도에 와서 이곳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성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자강도는 모든 일이 다 잘되니 마음이 놓입니다. 자강도에 오면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나는 자강도 인민들이 당을 따라 사회주의 붉은기를 지켜나가는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우리식으로 걸린 고리를 풀고 난관을 뚫고나가야 합니다.

김정일 총비서의 자강도 현지지도에 관한 보도를 읽으면 1956년 12월 28일에 있었던 김일성 주석의 강선제강소 현지지도를 연상하게 된다. 첫째로, 김일성 주석이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면서 당시 어려운 나라 형편에 관해서 노동자들에게 말해주었듯이, 김정일 총비서도 1998년 1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면서 오늘의 난국에 관해서 말해주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김일성 주석은 강선제강소 현지지도에서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당내 '종파주의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김정일 총비서는 일부 간부들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상태란 "그 무슨 새 것을 찾는다" 하면서 하늘에서 저절로 돈뭉치가 떨어질 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소극주의,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패배주의, 그리고 "우리의 기술만으로는 이런 설비들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넘겨다보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비주체성, 즉 발전된 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들여오는 수입정책을 자력갱생노선보다 더 중시하는 관점과 태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김일성 주석의 호소를 들은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이 "만세를 부르며 저마다 어떤 어려운 과업이라도 해내겠다고 결의하여 나서면서 종파쟁이들을 전기로에 집어넣겠으니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였던 것처럼, 자강도의 노동자들도 정신상태가 그릇된 일부 간부들의 허물을 타닝반으로 벗겨주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넷째로, 김일성 주석이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에게서 "또 한번 힘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일 총비서도 자강도의 생산현장에서 일감을 더 달라고 요청한 노동자들, 자체 기술을 동원하여 설비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에게서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힘을 얻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김정일 총비서가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혁명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일 총비서의 이러한 관점은 '로동계급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이라고 지적한 그 자신의 말에 잘 나타나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오늘 북(조선)에서는 김정일 총비서의 자강도 현지지도가 주는 의미를 1956년에 있었던 김일성 주석의 강선제강소 현지지도라는 원역사(原歷史)를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 총비서는 이렇게 말했다.

자강도 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당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을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령님께서 해방 직후와 전후 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강선을 찾으시고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도록 전국에 내세우신 것처럼 강행군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합니다. 자강도에서는 전후 시련의 시기에 강선의 로동계급이 그러했듯이 오늘의 강행군의 앞장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전국이 자강도를 따라 사회주의 강행군을 힘있게 벌려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로동신문』은 김정일 총비서의 자강도 현지지도가 "조선혁명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역사적인 현지지도"이며, 김일성 주석의 "강선제강소 현지지도와 같은 역사적 사변"이며,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양양으로 이끄는 전환적 계기로, 경제분야에서 일대 고조가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기록하였다. 저들은 "지금 우리는 강선의 정신이 창조되던 때와 같은 격동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한다. 1950년대 '천리마운동'이 강선제강소에서 시작되어 북(조선) 전역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오늘 북(조선)은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이 자강도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일 총비서가 '고난의 행군'을 마감한 전환기에 자강도를 현지지도의 첫 번째 대상지로 선택한 데는 이처럼 1950년대의 '천리마운동'을 재현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는 "천리마운동은, 우리가 일관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라고 말했다. 북(조선)은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전개하면서, 1950년대 '천리마운동' 시기에 겪었던 집단적 경험을 되살리고 있다. 『로동신문』은 "천리마 대고조를 일으키던 전후의 나날을 더듬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1998년 5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실었다. 북(조선)은 1950년대 말에 "밖으로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반공 반공화국 소동과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이 계속되고 안으로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이 당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 있던" 시련과 난관을 겪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북(조선)은 천리마운동을 일으켰다. 북(조선)에 따르면, "당시의 형편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1990년대 말의 "현실은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 같이 떨쳐나 50년대와 같은 천리마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방후 반세기 역사 중에 조선은 두 번째로 천리마를 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제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일어났던 '사회주의 경쟁운동'인 '천리마운동'은 무엇을 이루었던가? 북(조선)의 기록을 찾아보면, 1958년에는 자체의 힘으로 '트랙터와 '승리-58형' 화물자동차를 생산했으며, 연이어 8m 타닝반과 굴착기를 생산했다. '천리마호' 트랙터를 생산한지 3년 뒤인 1961년에는 당시 "기계공업의 정수"라고 하는 전기기관차 '붉은기호'를 생산했다. 이것은 "서방이 수백년동안 걸려서 한 나라의 공업화를 단 14년만에 실현"한 것이라고 자랑한다. 김일성 주석은 '천리마운동'의 성과에 대하여 말하면서 공업총생산액을 2.6배로 증가시키는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불과 2년반만에 달성했으며, 1957년부터 1960년까지 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3.5배로 늘어났으며 그 가운데서 생산재는 3.6배, 소비재는 3.3배가 증가함으로써 공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속도는 36.6%라고 밝힌 바있다. 북(조선)은 1961년에 평양 지하철 공사 착공하였다. 이러한 '천리마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조앤 로빈슨(Joan Robinson)은 「코리아의 기적」이라는 글에서 "전후 세계의 모든 경제적 기적은 이 성과 앞에서 빛을 잃는다"고 격찬했고, 르네 뒤몽(Rene Dumont)은 "북(조선)은 농업부문은 물론이고 아마 공업부문에서도 사회주의 진영을 이끌고 있다"고 칭송한 바있다. 지금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은 1950년대말의 '천리마운동'과 마찬가지로 자강도를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선전하고 따라배우게하여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모범 창조와 일반화라는 북(조선)의 전통적인 대중운동 방식이 자강도의 모범에서 시작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자강도 당위원회 연혁무 책임비서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1998년 7월 2-3일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자강도의

인민경제 여러 단위를 참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경제난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북(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를 두고 지금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공업부문의 전력증산운동과 중공업부문 생산정상화, 농업부문의 감자농사혁명, 토지정리사업은 바로 이러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의 4대 추진방향이다.

1. 전기화의 자력갱생과 전인민적 전력증산운동

자강도 장강군에 흐르고 있는 장자강의 지류인 북천 부근에는 북(조선)에서 널리 알려진 '장자산 혁명사적지'가 있다. 이곳은 1950년대 초 전쟁 시기에 김정일 총비서가 잣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지금은 거목으로 자라난 사연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1998년 1월 자강도 현지도에 나선 김정일 총비서가 마침 그곳으로 통하는 길을 지나게 되자 수행원들이 "이번만은 꼭 그곳에 들리기를 거듭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민들이 잘 살게 될 때 찾아오겠다. 후에 보자"고 말하고 "인민들에게 하루 빨리 전기화의 혜택을 안겨주려고 갓 일떠선 어느 한 발전소로 향"했다. 알려진대로, 김정일 총비서는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형발전소 건설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대규모발전소 건설과 함께 전인민적 운동으로 이르는 곳마다에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아주 정당하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강도를 전인민적인 전력증산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모범단위로 정하고 1997년 가을에 자강도 당위원회 연형묵 책임비서에게 "국내외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으며 "자강도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서 선행단위가 되며 전국적인 방식상학을 조직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자강도에서 중소형발전소 건설운동이 시작되자 김정일 총비서는 "수시로 건설정형을 알아보면서 건설자재로부터 발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해주도록 힘있게 밀어주었다." 그리고 1998년 1월 살을 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 현장을 찾아갔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 총비서가 자강도에서 현지도로 보낸 "3일간은 원자력을 바라보는 일부의 허망한 기대를 불살라 버리고 철저한 자력갱생만이 광명의 길이라는 진리의 확인으로 온 나라를 다시금 불러일으킨 힘찬 력사의 순간들"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김정일 총비서가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인민적 전력증산운동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총비서는 자강도에 건설한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보고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이 매우 잘되었다"고 치하했다. 그는 자강도 장강군에서 중소형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쓰고 있는 55동의 새 살림집, 그리고 강계시와 성간군에 55세대씩 건설된 전기화된 살림집을 돌아보고 그 집들에게 텔레비전을 선물로 보내주도록 지시하여, 수행원을 그 밤길로 평양에 보냈으며, 텔레비전은 다음날 기차편으로 강계에 도착하였다. 김정일 총비서는 텔레비전들이 기차에서 내려지는 것을 확인하고서 다음 현지도를 위해 길을 떠났다. 사실 북(조선)에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는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당 제5차대회와 제6차대회 보고에서도 이미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업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오늘 북(조선)에서 "전력의 긴장성은 인민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 전력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기에 지난 시기에 제기되었던 중소형발전소 건설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조선)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우리 식의 발전소 건설방식이며 현시기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보고 있다. 자강도는 "해발고가 120미터로부터 2천미터까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지대이면서 "압록강, 청천강, 장자강 등 물량이 많은 큰 강들과 근 800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흐르고" 있으므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이에 관해서 『로동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자강도에서도 발전소를 건설하자고 하니 발전기와 타빈 문제, 인체를 막을 세멘트와 강재 문제가 제기되었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았다. 때로는 술한 품을 들여 쌓아놓은 연체가 홍수로 순식간에 없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자강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언제 한번 주저앉지 않았고 발전기가 없으면 전동기를 개조하고 세멘트와 강재가 없으면 토목식 연체를 막아 일단 발전소 건설에 착수한 다음에는 전기가 나와 그 덕을 볼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갔다.

자강도에서는 1998년 3월 8월까지 다섯 달동안에 7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1만5천4백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여 중소형발전소 건설에서 계속 앞장서나가고 있다고 한다. 자강도에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은 "건설원가가 적게 들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큰 토목연계식, 수로식, 띄우개식, 부벽식, 수문연계식 등"이며 "발전기들은 거의 모두가 도 안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거나 전동기를 개조하여 만든 것들"이다. 1998년 9월까지의 자강도 안의 5개 군에서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지방산업공장을 다 돌리게 되었다고 하며, 자강도는 앞으로 몇 년 안으로 전력을 자급자족하게 된다고 한다. 자강도에서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난방도 하고 밥도 지어먹으며 여러 가지 가정용 전기제품도 쓰고 목욕탕도 운영"한다고 한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자강도에서는 1998년 한 해동안 1만7천여kw의 발전능력이 새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경험은 199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동신문』에 「자강도의 전기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15차례나 연재되었다. 올해 들어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본보기로 하여 각지에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 전군중적 운동이 벌어진 결과, 1999년 4월 현재 북(조선) 전역에서 5천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완공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 몇해동안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조성한 발전능력을 8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조성한 성과라고 한다. 이로써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은 수십만kw로 늘어났고 수십개의 시, 군들과 리들에서 지방산업공장을 비롯한 지방살림살이에 요구되는 전력을 자체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2. 다시 일어나는 기계공업과 제강공업

1998년 6월 1일 김정일 총비서는 자강도의 기계공업도시 희천에 있는 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2월26일공장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현지도하였다. 희천 현지도에 관한 『로동신문』의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 김정일 총비서는 청년전기연합기업소를 방문했을 때 공장벽에 폭 3m, 높이 12m로 크게 써붙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저 구호를 보시오, 얼마나 좋소라고 만족해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웃으면서 가고 있지 않는가고 웃었고" 수행원들도 모두 함께 웃었다고 한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30여년 전에 세워진 청년전기연합기업소는 용접봉 생산기지, 카바이드 생산기지, 압연강 생산기지를 비롯하여 생산에 요구되는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는 '자력갱생기지'들을 수십개나 보유하고 있고, 6천여평방미터의 온실과 수백평방미터의 벼밭 재배기지, 염소 방목지를 갖추고 있으며, 기능공학교와 공장대학을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소라고 하는데, 이 공장대학에서는 최근 몇해사이에 2백여명의 '로동자 대학생'들이 졸업하여 현장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김정일 총비서는 생산현장은 물론 '로동자 합숙'도 방문하여 "로동자들의 학습정형도 료해"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한 노동자들과 함께 청년전기연합기업소 로동자 문화회관에서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과 조선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 예술선대의 공연을 관람했다. 자강도 각지의 노동자 대표들이 이 문화회관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려 김정일 총비서는 2시간동안 기다렸다고 한다.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은 북(조선)에서 "기계공업의 어머니공장, 모체공장"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공장이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설비와 원료가 모자라 이 공장의 일부 시설이 돌아가지 못했고, 식량난을 겪는 노동자들은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일부 노동자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공장을 떠나 농촌에 있는 친척집으로 갔다. 『로동신

문'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동음을 울리지 못하는 기계바다, 일상적인 생활상 난관 앞에 맥을 놓은 적지 않은 노동자들, 텅 비다시피한 자재창고, 불을 끈 가열로"라고 묘사하였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의 아내는 "아침마다 남편의 점심과밥에 나물절반, 통강냉이절반인 밥을 눈물과 함께 담으며 한숨을 내쉬"다가 식량을 얻으러 집을 나섰고, 남편도 다섯살난 아들을 업고 앉고 있는 부모의 병구완을 위하여 고향으로 떠났다. 일부 노동자들은 "밥투정질하는 자식들을 보다 못해 농촌으로 떠났고" "부모를 찾아 고향으로 떠났다." 이것은 북부 공업지대의 식량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로 이러한 난관에 빠져 있던 공장에 김정일 총비서가 "소문없이" 찾아갔다고 한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공장을 이탈하여 고향에 갔던 그 노동자는 김정일 총비서가 자신이 일하던 회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로당원'인 아버지가 "동지들 앞에, 당조직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거라"고 한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공장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처럼 한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공장을 떠났던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와 공장에 나왔지만 공장에는 "쇠물을 녹일 선철도, 주형을 만들 모래도, 규소철도 없었고, 가공능력도 부족했으며 기능공도 모자랐다". 그런데 『로동신문』은 김정일 총비서가 현지지도를 한 직후 이 공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첫째로, 공장 당위원회는 5백여명의 기술자와 기능공으로 수십개의 '4.15기술혁신돌격대'를 조직하고 이 돌격대가 '2월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공정의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를 추진하게 했다. 이로써 몇해째 돌리지 못하던 여러대의 가공중심반, 수자조중보링반, 연마반과 같은 가공설비들이 원상복구·가동되었으며 합성주철생산공정을 비롯한 2백50여건의 기술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월26일공장에서조차 비슷하였는데, 이 공장에서도 공장 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4.15기술혁신돌격대'가 기술혁신에 앞장섰다. 둘째로, 김정일 총비서가 회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장을 이탈하여 농촌으로 떠났던 노동자들이 공장에 돌아왔다. 『로동신문』은 이때의 상황을 "순간의 실수로 사회의 버림을 받고 종적없이 자취를 감추었던 사람들을 이 신념과 각오를 안고 한 사람같이 붉은기 아래 모여들었다"고 묘사했다. 셋째로, 공장 안에서 생산의욕과 열의가 되살아나고, 회천시민들이 생산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벌어졌다. 『로동신문』은 "공장안의 모든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침식을 현장에 옮기고 불꽃 튀는 전투를 벌리고" 있으며, 노동자의 가족들도 밤이면 생산현장에 나와 일손을 도와주고 있으며, 공장병원 의사들은 생산현장 곳곳에 '현장치료초소'를 설치하고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고 저녁마다 오미자차와 콩우유를 공급해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은퇴한 '공로보장조 로인'들이 '로병돌격대'를 조직하여 생산현장에 합세했고, 회천 시내 인민반원들은 노동자들에게 지원물자를 보냈으며, 소년단원들은 꼬마기동예술선전대를 조직하여 생산현장에 찾아갔다. 이와 같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6월 7일에는 회천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노동자 쉼기모임'이 진행되었으며, 6월 22일에는 회천시에서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쉼기모임'이 진행되었다. 확실히 회천의 기계공업 생산현장은 달라지고 있었다. 회천공작기계종합공장은 김정일 총비서의 현지지도 이후 두 달 동안에 공작기계 생산과제의 70% 이상을 수행했으며, 마침내 8월말에는 100%를 수행했다. 이 기간 동안에 유압펌프, 전동기, 전기유도로, 전기로 천장 보수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고장난 설비를 보수하고 교체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 제기되었지만,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과제를 기한보다 앞당겨 완수했다. 2월26일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1t짜리 소둔로, 소형가열로를 자체로 제작하고 내부예비 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1년분 생산과제와 맞먹는 생산과제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수행했다. 1998년 10월 20일 김정일 총비서는 회천시를 또다시 현지지도하면서 회천공작기계종합공장, 청년전기련합기업소, 2월26일공장, 회천제사공장, 회천려관을 돌아보았다. 10월 20일의 회천시 현지지도는 6월의 현지지도에서 가을에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지만, 김정일 총비서가 같은 공장을 몇 달 사이에 두 차례나 현지지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이 지역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공장의 가동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북(조선)의 기계공업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0월 20일의 현지지도에서 김정일 총비서는 회천의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지원한 회천려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텔레비전, 랩동기, 화물자동차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회천려관의 노고라는 것은 회천려관 간부들과 종업원들이 회천공작기계종합공장 안에 구내식당을 차려놓고 노동자들에게 특식과 간식을 공급하고, 자신들이 만든 솜옷과 작업복을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노동자들을 위한 음악공연도 진행했던 것을 말한다. 10월 20일의 현지지도에서도 김정일 총비서는 공장기동예술선전대의 15분짜리 공연을 노동자들과 함께 관람했다. 그는 이 예술선전대의 공연이 인민군 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보고 꾸민 것임을 알고 다른 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를 또 보내주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약속하였다. 이것은 김정일 총비서가 노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인민군 예술선전대의 공연이 노동자들의 공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8년 한 해동안 김정일 총비서의 59차례 현지지도 가운데 문예공연 관람이 14차례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문예부문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천공작기계종합공장에 대한 자강도 예술선전대의 지원도 특기할만하다. 이 예술선전대는 노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출근길 선동공연과 하루 8차의 순회공연을 벌이고 준비해간 지원물자도 전했다고 한다. 10월 26일에는 '회천시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이 진행되었다. 김정일 총비서는 1998년 1월에 자강도 회천의 기계공업 부문을 현지지도한 뒤에 3월 9일에는 함경북도 성강에 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였다. 이 기업소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성진제강소로 불렸는데, 해방 직후 김일성 주석이 이곳을 찾아와 산재와 고역의 상징으로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원철로를 과감히 폭파해버리도록 조치했던 곳이다. 문제의 원철로가 있었던 옛터는 지금 금붕어와 사슴을 기르는 구내공원으로 바뀌어있다고 한다. 이 기업소는 규소강관, 베어링강, 고속도강을 비롯한 강재들을 대량생산하는 대규모 철강생산기지다. 3월 9일 이른 아침 "소문도 없이, 기별도 없이 문득"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 도착한 김정일 총비서는 "로동계급의 고난의 자욱이 어린 공장의 구내길을" 지나서 전기로 앞으로 걸어들었다. 그는 전기로 앞에서 "고난은 많지만 그 속에서도 전기로에 불을 활활 걸고 쇠장대를 역세게 휘두르고 있는 용해공들의 모습을 말없이,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리고나서 노동자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당을 받들여온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다시 한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대고조의 선봉에 설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강철직장 전기로와 고압관 직장을 돌아본 뒤에 현장에서 "강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문 일군협회의 회를 소집"하였다. 그는 1998년 말 이 기업소에 내연기관차 두 대를 보내주었다. 김정일 총비서의 현지지도 이후 이 기업소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 기업소의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수천립방미터 능력의 산소분리기를 되살려냈으며 전기로와 기중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수리정비하여 그 가동률을 더욱 높"였으며, "강괴굽 문제, 전기로 천장 내화재료 문제로 해결하였으며, 전극을 기업소 전극 직장장에서 질적으로 만들어쓰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고, "고압관 직장 전기로의 유압화를 실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생산정상화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인 압연 롤목을 직장 자체로 가공하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압연강재생산을 정상화하고 더욱 늘이기 위한 돌파구"가 열렸고, "나흘 동안에 수백건의 창고고안과 기술혁신안이 창조되"었으며, "나라에서 준 자금량의 3배에 해당하는 생산실적을 내면서 주체 자금법을 최대한 기간에 완성"하였다. 이 기업소의 5월17일공장에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제강법을 보다 원만히 완성하는 데서 큰 진전"을 이루어 "철강재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로동신문』은 김정일 총비서의 성진제강련합기업소 현지지도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기록하였다. 북(조선)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는 쉼기모임"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함경북도 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김정일 총비서가 북(조선)의 기계공업과 제강공업을 대표하는 생산현장을 집중적으로 현지지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생산을 정상화하여 경제난을 극복하자고 호소하고 생산현장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그 영향이 각급 당조직들과 다양한 선전교양매체를 통하여 산업 전반에 파급·침투되면서 각 공장과 기업소의 당위원회, 노동자, 기술자는 물론 일반 주민들까지 분발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북(조선)은 이러한 운동을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이라고 부르면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